

■ 2018년도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1차) 도서선정 심의총평(평론·희곡)

- 사업명 : 2018년도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1차)(평론/희곡)
- 회의일시 : 2018. 11. 2(금) 10:00~16:00
- 회의장소 : 문학나눔 회의실

평론·희곡부문에 접수된 종수는 모두 60종이었다. 이 중에서 작품의 수월성, 문학발전의 기여도, 파급효과 및 기대도 등 심의기준에 따라 1차,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13종을 선정하였다.

평론 부문의 경우, 위 심의기준 외에도 출판사 선정 제한 가이드라인(출판사별 선정종수 최대 10종, 분야별 4종 제한) 등을 검토해 심의를 진행했다. 단순 글모음집 칼럼보다는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애정 있게 읽어내려는 현장비평을 주목하고자 하였고, 외국 이론을 인용해 논지를 풀어낸 책보다는 국내 이론가를 참조해 새로운 논지와 비평적 감식안을 선보인 글을 높이 평가하였다. 무엇보다 독자들과의 호흡 또한 고려하였다. 그 결과 저자의 연작 형태의 도서, 에세이(수필) 성격이 강한 저작물 등을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희곡 부문의 경우 전반적으로 형식면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작가가 이야기하려는 메시지가 취약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사회적 이슈를 건드리는 작품 또한 예년에 비해 다소간 줄어든 듯한 느낌이었다. 최종 선정된 작품의 경우 내용의 중요성보다는 형식 미학의 새로움이 눈에 띄었다는 점을 여기에 밝힌다. 세상을 향해 말을 거는 방식의 변화가 한국 연극계에 어떤 바람을 불어넣을지 자못 기대된다.

2018년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심의위원 일동